

내년 재해예방사업 국비 826억 확보

전북도, 전년보다 146억원 증가... 국회심의단계서 7억5000만원 추가

전북도가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에 국비 826억원을 확보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9년 재해예방사업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최종 관문인 국회심의단계에서 7억5,000만원을 추가확보하며 전년 대비 146억원이 증가한 826억원을 최종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2019년도는 지방비 포함 총 1,652억원을 투자해, 침수 및 붕괴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어 자연재해에 취약한 소하천, 재해위험지구 등 5개 분야 124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소하천정비사업 717억원, 재해위험지구 480억원, 우수저류시

설 설치 204억원, 급경사지정비 190억원, 재해위험저수지정비 61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재해예방사업은 과거 재해가 발생했거나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의 위험요소를 해소시켜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자연재해 대응사업이다.

도는 내년에 기존 각 부처에서 별도 추진 중인 재해예방 사업을 일괄 추진하여 방재 시설 간 연계성을 높여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공사기간 단축을 통해 지역주민이 받는 건설 피로도를 줄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 공모사업인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행안부 침수예방, 국토부 하천정비, 환경부 관로정비 등 여러 부처 사업이 일괄 추진되는 지구단위 재해예방 사업이다.

2019년 임실지구를 시작으로, 도는 시군과 공조를 통해 추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 관계자는 "시군과 연계하여 국가예산 확보 및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사랑의 연탄을 나눠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직원들이 13일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의 에너지 빈곤 가정에 난방용 연탄을 전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해야”

최찬욱 도의원, 5분 발언

“서울·충남과 다르게 전북, 1만5000원 지원”



다"고 밝혔다. 최 도의원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34조가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규정하고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는 강행법규 입에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 등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은 학부모부담보육료를 학부모들로부터 일부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고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은 무상보육의 권리를 제한받고 보육비 부담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최찬욱 위원장은 2018년도 합계출산율에 따르면 전북은 1.35명으로 충남 1.47명이나 전남 1.52명보다 낮은데 갈수록 미혼여성도 증가하고 유배우 여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질타하고 마음편한 육아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의회 올 한해 의정활동 마무리

전북도 예산 7조530억 · 교육청 3조4691억원 심의 · 의결

전라북도의회는 13일 제358회 정례회 본회의 폐회를 끝으로 2018년도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전북도 건강가정지원 조례'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타 면제', '특례시 지정 기준 확대 촉구' 등 모두 35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9명의 의원이 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김철수 의원은 무분별한 태양광사업에 대해, 정호운 의원은 주거복지로드맵 필요성, 김희수 의원은 장애인 고용촉진, 김기영 의원은 대기오염 원인 분석, 최찬욱 의원은 민간어린이집 부

모부담보육료 지원, 황영석 의원은 혁신도시 시군2, 이병도 의원은 허울뿐인 천년전북, 진형석 의원은 광역환경교육센터 설립 촉구, 이명연 의원은 성공적인 혁신도시 시군2를 위한 선결과제 등을 제기했다.

도의회는 특히 안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한 뒤 수정을 거쳐 상정한 '전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한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 7조530억원 및 3조4691억원도 심의·의결했다. /김진성 기자

군산대 비전 선포식 개최

군산대학교가 13일 교내 아카데미홀에서 비전 선포식을 갖고 지역중심대학에서 대한민국 대표대학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공표했다.

선포식에는 김일준 군산시장, 김경구 군산시의회의장, 강태성 군산대 총동문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융합교육 선도대학'을 비전으로 ▲미래 창의 융합인재 양성 체계 고도화 ▲지·산·학 협력체계 활성화 ▲지속 가능한 대학운영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 ▲지역 사회 및 산업 발전선도 ▲소통과 공감을 통한 지속 성장의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북도내 출산율 '위기'

최근 10년 통계 분석 결과 합계출산율 1.15명으로 10년전보다 0.23명 감소 30대 이상 출산율은 늘어

전북도내 출산율이 심각 단계를 넘어 위기로 치달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호남지방통계청은 '최근 10년간 전라북도 출생통계'를 기획, 분석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출산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전북지역 합계출산율은 2017년 1.15명으로 10년 전인 1.38명으로 0.23명이 감소했다.

이는 또 통계청이 출산관련 통계를 시작한 지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1995년 1.69명보다 0.31명이 줄었다.

출생아 수 역시 1990년 2만1738명에서 2017년 1만1348명으로 1만여명 등 10개 부문에서 공적이 뛰어난 예술인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수여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8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오는 21일 오후 5시 르윈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토·일요일 신문 읽니다.

9위)은 전국 17개 시도 평균 1.05명보다는 높았지만 인근 전남 1.33명(전국 2위)에 비해 차이가 났다.

이번 통계에서는 지난 2007년과 비교해 20대 이하 출산율은 감소한 반면 30대 이상 출산율은 증가했다. 2017년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2.0세로 2007년 30.0세와 비교해 2.0세가 늘었다.

결혼 후 2년 이내에 첫째아를 낳은 비중은 2007년 79.2%에서 72.7%로, 여아 100명당 남아수는 107.0명에서 103.8명으로 역시 10년 새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14개 시군별 합계출산율은 순창군(1.80명), 진안군(1.63명) 임실군(1.58명) 순으로 높고, 고창군(1.04명), 전주시(1.05명), 정읍시(1.13명) 순으로 낮았다.

2007년 대비 출생아 수는 임실군(9.9%), 부안군(8.2%)만 증가했을 뿐 나머지 12개 시군 모두는 감소했다. 특히 장수군(-22.2%), 남원시(-16.7%), 무주군(-16.1%)의 감소율이 컸다.

한편 2018년 전북도의 모든 시군(김제시 첫째아 제외)은 첫째아 이상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아 출산 시 남원시·진안군·무주군·순창군은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muju 무주군

Lohas Zone-Muju에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무주반디복

농·특산물이 있습니다!

해발 400~800m, 연 평균 11.3°C.
한 여름 평균 기온 24°C의 보물창고
남부지역 유일의 고랭지 무주가 키웠습니다!
무주사람들이 정성으로 일궈냈습니다!

맛도 영양도 품질도 으뜸
무주반디복 농·특산물

판매처 | 무주반디복사이버점터
www.mj1614.com 무주군 직영
063)322-0278 / 320-2770 / 080-055-0027

발행처 무주군청 | 발행인 무주군수 | 편집인 기획조정실 홍보담당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 전화 063320-2223